

2021년 11월 1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산업과 과 장 김형식(044-201-2231), 사무관 이승욱(2232) / 제공일: 11월 15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배추 · 무 수급 상황 및 전망

- 배추 출하가 확대되면서 공급량 증가하여 수급여건 호전 전망 -
 - 수급안정 위해 정부 비축 및 농협 취급물량 공급 지속 -
 - 무는 전년 · 평년보다 낮은 가격 지속 -
- [서울신문 11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배추는 전남지역에서 출하가 확대되는 등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
- 무 가격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이며, 향후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
- 서울신문 11월 15일 <배추 46%, 열무 150%, 굴 36% 폭등에 “한 줌만 더” “남는 게 없다” 실랑이만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- 평년에 비해 배추는 46.5%, 열무는 150%, 굴은 36.9%씩 올랐다.
- 주말마다 시장을 찾는다는 70대 위모씨는 ‘배추 6,500원, 무 2,000원’이 적힌 가격표를 둘러보더니 “무 가격이 지난주의 2배가 됐다. 일주일 새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처음 본다”라고 했다.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배추는 가을 작형이 본격 출하 중으로 10월 하순 강원, 충청 지역 출하에 이어 11월 상순부터는 전남·전북·경북 등 전국으로 출하처가 확대 중입니다.
 - 중부 지역 중심으로 발생했던 무름병은 기온이 하강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번 주 기상이 좋아지면서 출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.
 -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까지의 가락시장 누적 반입량은 13,278톤으로 평년보다 669톤(5.3% ↑), 전년보다 1,084톤(8.9% ↑) 증가하였으나,
 - 이른 한파로 중부지역 김장이 일찍 시작되는 등 수요측 요인에 따라 배추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습니다.
 - 다만, 이번 주부터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, 11월 중후반으로 갈수록 출하 지역이 전남 등으로 확대되면서 물량이 증가하여 수급 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
- 무는 가을 작형이 출하 중이며, 이번 주부터 전북 고창·부안 등 최대 주산지에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됨에 따라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
 - 지난주는 잦은 비로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감소하였으나,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공급에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다.
 - 또한, 무는 도·소매가격이 모두 전·평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.
 - * 무 소매가격 : 11.상순 1,756원/개(전년 2,268원 평년 2,282원)
 - 무 도매가격 : 11.상순 1,074원/개(전년 1,150원, 평년 1,109원)

-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방출 등 긴급대책 시행에 돌입하였고, 일 평균 200~300톤을 가락시장에 방출 중입니다.
- 또한, 소비자의 김장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행사를 지원하고, 전국 800여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김장채소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
- 할인쿠폰 지원과 할인행사는 12월 8일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.